

‘안동향손사적통록’ 분석 2

한류문화苑 (대표 권오철 부정공파35世)

서문 및 발문 필자(筆者)의 구성과 특징
『안동향손사적통록』의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그리고 시문(詩文)은 총 27편으로, 해당 서적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필자의 이력은 당대 정치·사회적 위상을 반영하며, 안동 향리(鄕吏) 집단의 특별한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간행자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필자 일람의 주요 특징
고위 관직 및 명문 가문 출신 집중: 27명의 필자 대부분이 당대 최고의 명문가(閥閥) 출신으로, 영의정, 판서, 참판 등 고위 관직을 역임했다. 당파(黨派)별 안배: 필자는 노론(老論) 17명, 남인(南人) 5명, 소론(少論) 5명으로 구성되어, 중앙 정치권의 주류인 노론과 더불어 안동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남인 계열도 포함되었다. 거주지 분포: 서울(漢陽) 및 근교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당대 정치 권력의 공간적 배치와 일치한다.

구분	대표 인물	특징
노론(老論)	김학순, 김이양, 한용구, 권돈인 등	중앙 정치의 실권자, 고위 문관
남인(南人)	이아손, 홍희호, 김필주 등	안동 및 영남 지역의 공론 주도, 퇴계 서예·학봉 후예
소론(少論)	신위, 홍희준 등	중앙 관료층 포함

안동 향리(鄕吏)의 특수한 위상에 대한 강조
필자들은 일관되게 안동 향리들이 타 지역 향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지위와 위업(偉業)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번호	구분	쓴 시기	성명	본관	거주지	소속 당파	생존 연대	관직	비고
1	서문	순조 24년 (1824)	이아손 (李野叟)	진보 (眞寶)	예안	남인	1755~1831	장악원정 (掌樂院正)	퇴계의 9대손, 음서
2	〃		김재천 (金載沔)	연안 (延安)	한양	노론	1746~1827	영중추부사 (領中樞府使)	영의정을 역임한 손 이들로 영의정에 오름, 문과
3	〃		한용구 (韓用龜)	청주 (淸州)	〃	〃	1747~1828	영중추부사 (領中樞府使)	1821년에 영의정 역임, 문과
4	〃		홍희호 (洪羲浩)	풍산 (豊山)	〃	남인	1758~1826	예비 판서 (禮曹判書)	문과
5	〃		신위 (申緯)	평산 (平山)	〃	소론	1769~1845	호조 참판 (戶曹參判)	문과
6	발문	순조 (1802)	권중집 (權中執)	안동 (安東)	황주	노론	?	군수 (郡守)	권상하의 후손, 진사
7	〃	순조 24년 (1824)	홍병익 (洪秉翼)	남양 (南陽)	한양	〃	?	전행사(북시) 감정 (前行司僕寺檢正)	진사
8	〃		홍기섭 (洪耆燮)	남양 (南陽)	11	〃	1776~1831	참판 (參判)	진사
9	〃		서장보 (徐長輔)	달성 (達城)	〃	〃	1767~?	성균관 대사성 (成均館大司成)	문과
10	〃		이광문 (李光文)	우봉 (牛峰)	웅인	〃	1778~1838	이조 판서 (吏曹判書)	문과
11	〃		홍희준(洪羲俊)	풍산 (豊山)	〃	소론	1761~?	이조 판서 (吏曹判書)	홍양충의 아들, 문과
12	〃		김학순 (金學綬)	안동 (安東)	〃	노론	1767~1845	이조 판서 (吏曹判書)	장동 김씨 출신, 문과
13	〃		홍기섭(洪起燮)	남양 (南陽)	〃	〃	1776~1831	이조 판서 (吏曹判書)	문과

권영순 한지화가를 만나다



권영순(權寧順) 한지화가가(韓紙畵家)는 고향이 봉화이다. 3남 1녀 중 막내이다. 4남매 모두 6살 터울이다. 그래서 닭띠가 둘, 토끼띠가 둘이다. 그 사연은 이렇다. 아버지는 원래 안동에 살았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일은 하지 않고 글만 읽는 백면서생이었다. 그 10년 동안 어머니는 잉태하지 못했다. 친정에서는 그 집 귀신이 되라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일을 잘했다. 솜씨와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다. 특히 음식 요리를 아주 맛나게 잘했다. 한복은 수를 놓아 색깔을 내서 만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까지 옷을 지어 드렸다.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도 잘돼 곳간을 점점 넓혀야 했다. 쌀, 배추, 감지 등이 곳간에 가득 차고 넘쳐났다. 심지어 노비 집에 필요한 것까지 만들어 나누어 줄 정도였다. 그러니 집안에서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어

양반 사족(士族)과의 동근성(同根性) 강조: 홍병익(洪秉翼)은 발문에서 “향리와 사족은 등위(等威)는 다르나 그 근본은 균등하다”며, 호장(戶長)의 후예로서 태사(太師)를 같은 조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유교적 덕목과 업적의 구현: 향리 중에는 이역(吏役)을 벗어나 문무(文武)에 종사하거나, 충(忠)·효(孝)를 실천하여 정려(旌閭)와 공신(功臣)의 영예를 받은 사례가 많다고 기술했다.

학문과 예술의 성취: 이재(吏才) 외에도 문장(文章)과 필획(筆畵)으로 예원(藝苑)에서 이름을 떨친 인물이 많다고 강조하였다.

안동 향풍(吏風)의 우수성
한용구(韓用龜)는 안동 부사로 재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동의 이품이 비록 옛날 같지는 않으나 다른 도(道)나 다른 읍(邑)에 비하면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당파 필자 참여의 배경과 간행자의 의도
간행자(권영창 가문 등)가 다양한 당파의 필자를 초청한 것은 당대 사회 현실을 의식한 신중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략적 배려의 요인
중앙 정치권의 인정 필요: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노론 계열 고위 관료들의 지지와 인정을 얻어 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지역 남인 사족의 영향력 수용: 안동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남인 계열 사족들의 위세(威勢)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

대립보다는 포용의 논리: 한쪽 당파로 치우치거나 대결하기보다는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며 안동 향리



공동체의 지위를 관철시키려는 신중한 접근.

필자 선정의 함의
이처럼 노론·소론·남인을 고르게 안배한 것은 안동 향리들이 중앙의 정치적 권위와 지역의 사회적 권위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특별한 집단임을 보여주는 위한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 향리층이 단순한 행정 하층 관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기반(儲業)을 바탕으로 학문·관직·덕행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독자적인 세력임을 시사한다.

결론
『안동향손사적통록』의 서문과 발문 필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 향리 집단은 조선 후기 다른 지역 향리와 구별되는 높은 사회적 위상을 지녔다. 간행자는 중앙 정치 권력(주로 노론)과 지역 사족 권력(남인) 모두를 아우르는 필자 구성을 통해 이들의 특수성을 전국적·지역적 차원에서 인정받고자 했다. 이는 조선 후기 지방 사회에서 향리가 단순한 ‘역(役)’을 수행하는 계층이 아니라, 가문과 학연,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족 사회와 유사한 지위를 향상시켜 나간 독특한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안동향손사적통록』이 단순한 인물 기록을 넘어, 안동 향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위상을 당대 사회 구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역사적 문서임을 입증한다.

번호	구분	쓴 시기	성명	본관	거주지	소속 당파	생존 연대	관직	비고
14	〃		권병응(權丕應)	안동 (安東)	〃	〃	1754~?	이조 참판 (吏曹參判)	권상유의 후손, 문과
15	〃		윤병렬 (尹秉烈)	해평 (海平)	〃	〃	1770~?	경연 서록관 (經筵侍讀官)	문과
16	〃		조정철 (趙貞喆)	양주 (楊州)	과천	〃	1751~1831	의정부 좌찬성 겸 지경연사 (議政府左參贊兼知經筵事)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인 조태재의 아들, 문과
17	〃		권돈인 (權敦仁)	안동 (安東)	황유	〃	1783~1859	승정원 우승지 (承政院右承旨)	1845년에 영의정이 됨, 문과
18	〃		오치규 (吳致圭)	수양 (首陽)	한양	〃	?	전군수 (前郡守)	
19	〃		이익희 (李翺翊)	전의 (全義)	〃	〃	1767~1843	예조 판서 (禮曹判書)	안동 부사를 역임했음, 문과
20	〃		김희준(金熙綬)	익성 (義城)	안동	남인	1760~1830	병조 참판 (兵曹參判)	문과
21	〃		유상조 (柳相祹)	풍산 (豊山)	〃	〃	1763~1838	판서 (判書)	문과
22	〃		유태재 (柳台佐)	풍산 (豊山)	11	〃	1763~1837	참판 (參判)	유성룡의 후손, 문과
23	시		오현원 (吳翰源)	금성 (鎭城)	창평	노론	1750~?	형조 참판 (刑曹參判)	문과
24	〃		신재식 (申在植)	평산 (平山)	?	〃	1770~?	이조 판서 (吏曹判書)	문과
25	〃		김이양 (金履襄)	안동 (安東)	한양	〃	1755~1845	이조 판서 (吏曹判書)	장동 김씨 출신
26	〃		이일언 (李一淵)	?	?	?	?	현감(縣監)	
27	〃		서만순 (徐萬淳)	달성 (達城)	?	소론	1791~?	참판 (參判)	

쩔 수 없이 집에서 바로 보이는 산자락에 묘자리를 잡아야만 했다. 큰아버지는 할아버지 묘가 봉화에 있는 것이 영 못마땅했다. 고향 안동으로 이장을 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여곤 했다. 아버지는 극구 반대했다. 어느 날 산자락을 보시던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할례벌떡 달려가 보니 할아버지 묘소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알고 보니 큰아버지가 아버지 몰래 안동으로 이장을 해 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권영순씨가 태어난 바로 그 해였다. 그토록 딸을 점지해 달라고 청랑사에서 1,000일 동안 기도하고 장독대에서 빌고 또 빌었건만 그렇게 원하던 딸이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하직하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어머니는 그랬다. 너를 얻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를 얻으니 아버지를 잃었다고 탄식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권영순씨가 17살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집에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와보니 올케는 친정에 보내 놓고 어머니 혼자 계시더라ندا. 그리고 니가 해준 죽을 먹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ندا. 그래서 생긴 처음 죽을 쑤어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는 세 숟가락을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딸이 해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죽을 마지막으로 먹고 홀출 떠나셨다고 한다. 권영순씨는 마지막 길에 딸이 직접 지은 죽을 먹고 가시게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했다. 어머니는 유언으로 “하나 얻거든 하나를 기부하라”고 하셨단다. 그래서 논현동 집 120평이 남아가도 어머니 유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오히려 돈한테 고맙다고 세 번이나 인사했다고 한다. 그래야 산다고 어머니께서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문충공 양촌 권근과 천상열차분야지도

권영훈(추밀공파, 34世) 한의원 원장은 50여 년 전,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소장자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구입하기를 원했으나 너무 비싸 구입하지 못했다. 다만 원본을 영인해 최근까지 소장하고 있다가 2025년 10월경에 양촌기념관에 기증하였다. 이에 권오협 문충공 회장이 이를 액자에 표구하여 양촌기념관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나중에 보니 원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더라ندا.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는 1395년에 하늘의 별자리를 둘레 새긴 석각천문도이다. 이 천문도는 600여 년 전에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아 문충공 양촌 권근(1352-1409) 등이 고구려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천상열차분야지도 제작에 참여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이 중 가장 관직이 높은 양촌 권근 선생이 총책임자로서 제작에 가장 큰 공을 세웠으며 발문을 지었다.

발문에는 참여자들의 역할이 나열되어 있는데, 고려말 마지막 천문대장(당시는 판서윤관사)이었던 류방택은 계산을 하고, 교서감이었던 설경수는 글씨를 썼다. 당시 서윤관에 근무하던 권중화를 비롯한 9명의 학자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촌 권근은 발문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단지 하늘의 별을 기록한 천문지도만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하늘의 천명(天命)을 받았다는 정치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천문도의 돌판은 옛날 평양성에 있었는데, 전쟁통에 강물에 빠뜨려 잃어버렸고,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복사복도 없었다. 아야! 우리 전하께서 천명을 받으시던 첫 해에 어떤 이가 복사본 하나를 가져왔다. 전하께서는 이를 보물로 귀중하게 여기셔서 서윤관에 명하여 다리 둘레 새기게 하셨다. 서윤관에서 말씀 올리기를 ‘이 그림은 세월이 오래되어 별의 도수가 이미 차이가 나므로 마땅히 도수를 다시 측량하여 오늘날 사계절의 저녁과 아침에 남중하는 별을 정한 다음에 새로 별그림을 그려서 후세에 보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께서 옳다고 하셨다. 이에 해를 넘겨 지난 을해년 여름 6월에 새로 중성기 하나를 지어서 헌상했다. 옛 그림에는 입춘에 묘수가 저녁에 남중했는데 지금은 위수가 남중한다. 그리하여 24월기가 차례로 어긋난다. 남중하는 별을 고쳐서 둘레 새기는 일을 마쳤다. 신하 권근에게 명하여 그 뒤에 기록하게 하였다. 신 권근이 곰곰이 생각하건대, 예부터 제왕이 하늘을 받들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천문현상과 때를 모든 일의 으뜸으로 삼았다. 요 임금은 의화에게 명하여 사계절의 질서를 잡았고, 순 임금은 선기옥형(천체관측기)을 살펴서 칠정(해,달,오행성)을 다스렸다. 성심으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삼가 생각건대 어질고 밝으신 전하께서 제위를 선양 받으



천상열차분야지도 목판본, 서울대 규장각

시니 나라 안팎이 편안하고 태평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요순의 덕과 같았다. 먼저 천문을 살펴서 중성을 바로 잡은 것은 곧 요순의 정치이다. 요순이 천상을 관찰하고 의기를 제작한 본 마음을 추구해 보면, 그 근본은 다만 하늘을 공경하는 데 있을 뿐이다. 전하 역시 공경함을 마음에 두어, 위로는 하늘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쓰시면 그 신공이 빛나서 당연히 요순과 같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천문도를 단단한 옥돌에 새겨 자손만대의 보물로 삼으려 하심이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https://www.gogostar.kr)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양촌 권근’을 소개하는 글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만들어진지까지 고려의 마지막 판서윤관사(천문대장)였던 류방택의 공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류방택은 1320년생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제작된 1395년에 75세의 나이였음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천문관측을 통한 별자리 수정은 당시 43세였던 권근을 필두로 서윤관의 젊은 학자들이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정된 천문도를 바탕으로 태조의 뜻을 받들어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대작을 만들고 그 취지를 기술한 권근의 공로도 류방택보다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음성 방축리 양촌기념관에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액자로 표구하여 소장하고 기념관 앞에 둘레 새긴 묘사본 석각을 세운 것으로 양촌 선생의 공적을 알리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앞으로 양촌학회나 양촌기념사업회 등을 설립하여 양촌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공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 일은 후손들이 맡아야 할 책임이 아닐까.

권행완 편집국장



한지화는 밑그림이 없다. 일일이 손으로 한지를 찢어 붙였다.

한지(韓紙)는 천년의 수명을 자랑하는 한국의 전통문화이다. 권영순 한지화가는 2000년도에 아셈 초대작가, 인천공항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등 한지 화가로서 유명하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등에서 한지화(韓紙畵)를 강의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한지한복도 만들고 처음이자 마지막 옷인 수의(壽衣)도 한지로 만들어 수의 전시회도 열었다. 그럼에도 자신이 돋보이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 한 발짝 물러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돋보이도록 한다고 말한다. 마치 한지가 햇빛, 달

정정보도

2025년 11월호 8면 ‘추밀공파 정헌공계 목사공 증중 숭덕재 준공기념식 거행’ 기사를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지면	정정 전(~에서)	정정 후(~으로)
2025년 11월호 8면	추밀공파 정헌공계 목사공 증중(회장 권영익) 숭덕재 준공기념식…… 권석원 유회당 증중 이사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추밀공파 정헌공계 목사공 증중(회장 권영익) 숭덕재 준공기념식…… 권석원 좌윤공(左尹公) 증중 이사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빛, 불빛에 따라 아름다움이 다르듯이. 이것이 안동 권씨 집안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하며, 나를 쳐다보는 하늘이 있는 것 같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안동권씨로서 누리는 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안동권씨답게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하며, 몸과 마음이 명품이 되도록, 50년 동안 아침마다 태극권으로 수련하면서 얼굴이 진짜 명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